

여자배구 MVP 김연경, 현역 연장 선택

“팬들 위해 한번 더 도전”

개인 통산 6번째 MVP 차지  
공수 양면서 견재함 과시  
다음 시즌에도 흥국생명서

프로배구 여자부 현역 연장과 은퇴를 두고 고민했던 배구 여제 김연경(36)이 다음 시즌에도 흥국생명 유니폼을 입고 코트 위를 누빈다. 김연경은 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도드람 2023~2024 V-리그 시상식'에서 정규리그 여자부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31표 중 20표를 획득한 김연경은 2년 연속 MVP를 거머쥐었다. 2023~2024시즌 득점 6위(775점), 공격성공률 2위(44.98%), 리시브 5위(효율 42.46%), 수비 8위(세트당 5.557개)에 오르는 등 공수 양면에서 견재함을 과시했다.

김연경은 수상 후 “큰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시즌 팀이 정규리그 2위를 해서 MVP 후보에 올랐어도 받을 줄 몰랐다”며 “양효진(5표)이 후보에 올라와서 내가 MVP를 받을 것 같았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양효진보다 내가 더 나은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거취를 묻는 사회자의 말에 “많이 고민했고, 흥국생명 구단과 대화를 나눴다. 내년 시즌 팬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23~2024 V-리그 시상식에서 여자부 정규리그 MVP와 베스트7을 수상한 흥국생명 김연경이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들을 위해 한번 더 도전하기로 결심했다”며 현역 연장 의사를 드러냈다.

시상식이 끝난 뒤 기자회견실에서 만난 김연경은 “시즌 중반부터 감독님, 구단 관계자, 가족 등과 이야기를 나눴다. 많은 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지난 시즌보다 올 시즌 개인 성적이 더 좋아서 현역 연장을 결정

했다”며 “다음 시즌이 더 부담스럽겠지만, 이겨내고 우승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김연경은 배구장에서 팬들과 더 호흡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그는 “주변에서 조금 더 뛰었다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다. 가장 큰 이유는 팬분들의 응원이다. 아직 내가 배구 선수로 뛰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다음 시즌에 컨디션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최정상에 있는 모습을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2005~2006시즌 흥국생명에서 프로에 데뷔한 김연경은 6차례 정규리그 MVP를 수상하는 영광의 순간을 흥국생명과 함께했다. 6회 수상은 여자부 역대 최다 수상 기록이다.

차기 시즌에는 2년 연속 챔피언결정전 준우승의 아쉬움을 털고 정상에 노린다.

김연경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흥국생명에서 뛰고 있는데 인연이 깊다. 오랫동안 함께하고 있고, 다음 시즌에도 같이 간다. 내년에는 함께 우승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김연경은 수상 후 단상에서 “V-리그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모든 배구인들이 하나가 돼 한국 배구가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연경은 “아시아쿼터가 도입되는 등 V-리그는 매년 발전하고 있다. 또 수준 높은 리그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배구대표팀에 대한 관심은 많이 줄어들었다. V-리그에서 보여준 열정을 대표팀에서도 보여줘야 한다. 대표팀이 잘해야 V-리그도 더 발전한다. 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뉴스



장수군에서 지난 6일 진행된 '2024 제3회 장수트레일레이스 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사진=장수군청 기자)

‘한국의 샤모니’ 위를 달리다

장수 트레일레이스 성료

한국의 샤모니, 장수군에서 지난 6일 진행된 '2024 제3회 장수트레일레이스 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해외 13개국 선수들을 비롯해 총 1,200여 명이 참여해 국제 대회로 거듭나며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이번 대회는 20K(415명), 38K(572명), 70K(212명) 총 3개 코스로 치러졌으며, 전날에는 4K 서밋 스프린트 종목이 이벤트로 개최돼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입문의 기회를 제공했고 이목을 끌었다.

새롭게 추가된 70K 코스는 장수종합경기장을 시작으로 승마로드-와룡자연휴양림-팔공산-신무산-논개활공장-장안산-동촌고분군-의암공원으로 이어져 장수군의 주요 명소를 전부 만끽하며 달릴 수 있는 최장 코스로 선수

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대회 결과 △70K 김지수 선수(8시간 42분51초), 황지호 선수(11시간 20분 4초) △38K 이형모 선수(4시간 19분 7초), 테라다 미나 선수(5시간 2분 6초) △20K 김수용 선수(2시간 16분 34초), 손효진 선수(2시간 59분 39초)가 각각 남녀부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이형모 선수는 전남 서밋스프린트(4K)에서도 우승해 2관왕에 올랐다.

이번 대회는 장수경찰서, 장수군 자율방범대, 자원봉사자 센터 등 지역 기관·사회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속에 안전하게 마무리됐다.

한편, 장수트레일레이스는 향후 일정을 앞두고 있다. 6월 22일 반려견과 견주가 함께 달리는 '제1회 장수 반려견 트레일레이스'가, 9월에는 100K 코스 추가로 봉화산과 백운산까지 이어질 '울트라트레일 레이스 대회'가 예정돼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난 6일과 7일 양일간 진안고원 역도훈련장에서 열린 '2024 진안역도 스포츠클럽 회장배 동호인 역도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된 가운데,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진안고원서 역도의 인기 끌어올렸다

진안역도 스포츠클럽 회장배 동호인 역도대회 성료

지난 6일과 7일 양일간 진안고원 역도훈련장에서 열린 '2024 진안역도 스포츠클럽 회장배 동호인 역도대회'가 전국 각지의 대회 출전선수 및 관계자 등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역도의 인기와 열기를 끌어올리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전북특별자치도역도연맹과 (사)진안역도 스포츠클럽, 진안군역도연맹이 공동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는 엘리트 출신 선수를 제외한 전국 역도 동호인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경기방식은 3인 1팀의 단체전으로 진행됐다. 대회 기간 동안 전춘성 진안군수를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서거석 교육감, 전용태 도의원 등 내빈들이 대회장을 찾아 대회출전 및 관람을 위해 진안을 방문해 준 관계자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나누었다.

경량급과 중량급으로 나눠 진행된 경기 결과, 남자부 울산 크로스핏 힐크(경량급)와 전주 팀 한옥(중량급), 여자부 대전 역도동호회(경량급)와 전주 펜텀 트레이닝(중량급)이 우승을 차지했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대회를 위해 힘써주시는 전북특별자치도역도연맹과 (사)진안역도 스포츠클럽을 이끄시는

김태건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며 “진안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역도 금메달리스트인 전병관 선수의 고향이자 매년 전국 중·고등학교 역도부 등이 찾아오는 전지훈련의 메카인만큼 앞으로도 역도의 고장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각종 대회 유치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진안역도 스포츠클럽은 2022년부터 대한체육회와 진안군의 지원으로 진안군에서 공공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 선수반과 성인 생활체육반을 구성해 역도 및 생활체육 활성화와 주민들의 체력증진은 물론 특히 역도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서 ‘춘계 전국승마대회’ 마무리

장수국제승마장에서 지난 7일까지, 5일에 걸쳐 대한승마협회(회장 박서영) 주최로 개최된 '2024 춘계 전국승마대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번 대회는 마장미술, 장애물 등 2개 종목 14경기에 일반인, 유소년 등 약 3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여 어느 대회보

다 경쟁이 뜨거웠다.

대회 결과 마장미술 A클래스 1순위 김오석, B클래스 남동현, D클래스 문정운, 장애물경기 100클래스 이채린, 110클래스 신승운, 120클래스 이에진, 130클래스 이주성, 140클래스 이기주 등이 수상했다.

이번 승마대회 개최로 1,000여명의

선수와 방문객이 장수군을 방문해 생활인구 증가에 기여하고, 1억원 이상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향후 각종 승마대회 개최를 통해 전북 말산업특구를 대표하는 지역으로서 장수군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승마인구 저변 확대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우주의 신비 V 97x130cm 합판 위에 아크릴 2023

## 生畫 그래도 그림

The 2nd Solo Exhibition by Ha Ji Hong

### 하지홍 개인전

2024. 04. 16(화) - 05. 15(수) 기린 문화공간 기린미술관 2관

Opening\_ 2024. 04. 16(화) PM 4:00

5499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4길 46 기린오피스텔 3층 Tel: 063-284-0888